

보 도 자 료

11.8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작 성 부 서	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단	담당자	기획조정팀	손성연 과장 (02-397-7710)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

-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

“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평 확대”

“한-아세안 교역규모 7.6% 증가, 연내 1,600억불 상회 예상”

1.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는 11.8(목) 위원회 대회의실(광화문 오피시아빌딩)에서 김현철 위원장(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)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,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*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.

* 참석위원 :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(민간위원), 외교부 차관 등 11개 부처

○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로서,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.

2. 김현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‘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(People), 상생번영(Prosperity), 평화(Peace)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

○ 아세안과 인도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, 문화,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말했다.

○ 이어 구체적 성과에 대해,

- 신남방 특히,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*는 전년 동기(10월 기준) 대비 7.6%가 증가하여 연내 1,60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, 신남방 정책을 통한 민·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,0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,

* '17.1~10월 1,228억불 → '18.1~10월 1,321억불

-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한-신남방 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%수준으로 증가하여, 올해 최초로 1,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.

○ 한편,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·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,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.

3. 이어 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.

□ (외교·안보 지평 확대)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1년여 동안 신남방 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·안보 지평을 확대했다.

▲ 우리 정상 인니·베트남·필리핀('17.11), 베트남('18.3), 싱가포르·인도('18.7) 양자 방문 / 필리핀 대통령('18.6), 인니 대통령('18.9) 방한 접수

○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 하였으며,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.

○ 내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*에 대해서도 정상방문을 추진하여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며,

* 태국, 라오스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브루나이

- 특히,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**한-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**하고, 한-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 강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.
- 국방분야에 있어 **‘한-아세안 국방차관급 협의체’** 연례 개최 및 **‘한-인니 2+2 외교·국방 채널’** 개설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.
 - 특히,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**‘국방협력 MOU’** 및 **‘상호군수지원 협정’**을 체결하여 평시·유사시 안정적인 국방협력 체제를 유지 하는데 기여했다.
- **(시장진출 기반 마련)**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 하며, 지역별·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**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** 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.
- 인도네시아, 베트남, 인도와는 자동차, 철강·석유화학, 에너지 등 **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**했다.

▲ (자동차) 기아차-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'17년 착공('19.하반기 양산)
 ▲ (철강) 포스코-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('16.8~'20.상반기)
 ▲ (석유화학) 롯데케미칼-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(30억불, '20년 착공)

-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**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** 등을 설치하였으며, **민간 벤처캐피털(VC) 공동펀드**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.

▲ (기술지원) 베트남 TASK센터(항공기술지원, '19),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(인도네시아, '18.4/ 인도, '18.7/ 태국·말레이시아, '19)
 ▲ (스타트업) ‘코리아스타트업센터’ 설치 추진(인도·싱가포르, '19년 예정)
 ▲ (민간펀드) 한-인니 민간VC 공동펀드 조성(75백만불, '17.12), 인니 핀테크·물류 2개 기업 투자

-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, 농식품 상설판매장, 온라인마켓 등을 지원하고 제약·의료기기,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.

- ▲ (농식품) 신선농산물 집중육성으로 對아세안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40.2% 상승('18.9.)
- ▲ (제약) 국내 제약업체 9개(대웅·일동·광동제약 등)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(~'18.)

-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·바이오 분야 공동 R&D와 5G 통신 협력,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(V-KIST),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을 추진했다.

- ▲ (R&D) 한-인도 공동R&D·인력교류 위한 미래전략그룹 설립 합의('18.7월), 한-싱가포르 혁신기술협력 MOU 체결('18.7월)
- ▲ (연구기관) V-KIST '18.3월 착공('20.하반기 완공), 한-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합의('18.7월, '19년 뉴델리 설립)

- (인프라 수주 확대)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'18.10월 기준 98.9억불(전체 수주액의 40.9%)을 기록해 85.7억불을 수주한 중동(35.5%)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.

- 동 성과는 건설 수요가 높은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정상순방시 인프라분야 의제채택, 고위급 협력채널 가동 등 민관 합동 수주지원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했다.

- ▲ 「룽탄 신공항 기본계획」('18.3 베트남 국민방문 계기), 「뭄바이 남부해안도로」('18.7 한-인도 정상회담 계기) 등에 우리기업이 신규 수주에 성공

-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-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('18.9, 서울)하여, 중점 협력사업* (10개국, 20개)을 채택했다.

- ▲ 8번국도 개량협력(라오스),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(말레이시아), 양곤 도시고속도로 개발 협력(미얀마), 두마게테 신공항 개발협력(필리핀) 등

- 또한, 2022년까지 1억불 규모의 한-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(문화·인적 교류 활성화) 올해 처음으로 신남방지역과의 상호방문객이 1,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, 금년도 방한 신남방 관광객 수 역시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.5%가 증가했다.

-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한류관광상품 개발, 국내 여행여건 및 비자 완화 등을 추진했다.

▲ 한-태국 수교 60주년 계기 한국문화관광대전(태국 방콕, '18.10), 동남아 2선 도시 한국문화관광대전(인니 수라바야, '18.3) 개최, 국내 할랄 레스토랑 위크 개최('18.8.-10.), 의료·드라마촬영지·동계스키 등 한류 관광상품 개발·관측

▲ 비자 완화 : 베트남·필리핀·인니 복수비자 대상 확대 및 서류 간소화('18.1.), 비자신청센터(베트남, 인니) 운영기관 선정('18.10.)

- 또한 신남방 국가와의 교육 분야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, 특히 아세안지역 유학생이 지난 1년 사이 1.6배 증가했다.

▲ 아세안 출신 유학생 증가 : '17년 19,968명 → '18년 32,574명

▲ '18. 4월 기준, 전체 외국인 유학생(142,205명) 중 아세안 유학생은 23% 수준

4. 또한,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, 추진과제, 이행방안 등 전반적인 추진전략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였다.

□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“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”이다.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과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이들과 정치안보, 경제,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.

○ 비전과 3P 공동체(People, Prosperity, Peace)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다(상세내용 별첨 참조)

- 그 간 정상외교 과정에서 합의된 교역 및 상호방문 규모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였다.

◇ **사람 공동체** :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

* 성과지표 : 2020년까지 한-아세안 상호방문객 연간 1,500만명 달성

☞ **추진과제** : ① 상호 방문객 확대, 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, ③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, ④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, ⑤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·증진 ⑥ 삶의 질 개선 지원

◇ **상생번영 공동체** :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

* 성과지표 : 한-아세안 2020년 교역액 2,000억불, 한-인도 2030년 교역액 500억불

☞ **추진과제** : ① 무역·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, ②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, ③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, ④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, ⑤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

◇ **평화 공동체** :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

☞ **추진과제** : ①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, ②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, ③ 국방·방산 협력 확대, ④ 역내 테러·사이버·해양 안보 공동대응, ⑤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

□ 추진전략은 앞으로 정부부처 및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 위원회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그 성과를 점검·관리할 예정이다.

□ 김현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 하겠다고 했다.

신남방정책 관계부처 담당자

부처	부서	담당자
기획재정부	국제경제과	장도환 과장 (044-215-7630) 어지환 사무관 (044-215-7713)
교육부	국제교육협력담당관	박대림 과장 (044-203-6784) 황소정 사무관 (044-203-6817)
과학기술정보통신부	미주아시아 협력담당관	신상열 과장 (02-2110-2290) 강현웅 사무관 (02-2110-2313)
외교부	아세안협력과	차웅기 과장 (02-2100-8451) 김대식 서기관 (02-2100-8456)
법무부	체류관리과	이덕룡 과장 (02-2110-4058) 주지정 사무관 (02-2110-4059)
국방부	다자안보정책과	최정익 과장 (02-748-4730) 엄미리 주무관 (02-748-4732)
행정안전부	국제협력담당관실	채경아 과장 (02-2100-4059) 윤광순 사무관 (02-2100-3373)
문화체육관광부	국제문화과	정영석 과장 (044-203-2561) 손미숙 사무관 (044-203-2562)
농림축산식품부	국제협력 총괄과	박상호 과장 (044-201-2031) 권현 주무관 (044-201-2037)
산업통상자원부	신남방통상과	배성준 과장 (044-203-5180) 하정욱 사무관 (044-203-5713)
보건복지부	국제협력담당관	김연숙 과장 (044-202-2360) 김성경 사무관 (044-202-2354)
고용노동부	개발협력지원팀	양승준 과장(044-202-7162) 최혜은 사무관(044-202-7165)
국토교통부	해외건설지원과	이명섭 과장 (044-201-3526) 이기림 사무관 (044-201-3528)
해양수산부	국제협력총괄과	강인구 과장 (044-200-5330) 유현숙 사무관 (044-200-5342)
중소기업벤처부	국제협력담당관	강기성 과장 (042-481-6893) 이일준 사무관 (042-481-6868)
방위사업청	국제방산협력과	한장근 과장 (02-2079-6420) 오예리 주무관 (02-2079-6422)

- 일 시 : '18.11.8.(목) 8:00~9:10
- 장 소 :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6층 대회의실
- 참석자(위원)
 - 김현철 경제보좌관(위원장), 배기찬 민간위원(위촉), 외교부 차관,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,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, 농림축산식품부 차관, 중소벤처기업부 차관, 방위사업청 청장, 산업통상자원부 실장, 보건복지부 실장, 교육부 실장, 법무부 실장, 국토교통부 실장, 해양수산부 실장

□ 주요내용

- (안건)
 - 신남방정책특위 추진경과 및 신남방정책 추진전략
 - 신남방정책 성과점검(부처별 대표 성과사업)
 - ① 외교·안보 지평 확대
 - ② 시장 진출
 - ③ 인프라 수주
 - ④ 문화·인적 교류

행 사 내 용	비 고
▪ 위원장 모두말씀	* 언론공개
▪ 안건 발표	* 비공개
▪ 토론	* 비공개
▪ 위원장 마무리 말씀	* 비공개

- 안녕하세요,
 -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철입니다.
-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
 - 배기찬 위원님,
 - 그리고 각 부처 차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난 8월 하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,
 - 대통령께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
 -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어
 - 위원장으로써 매우 뜻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
- 미·중간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등
 -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
 -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 외교와 경제를
 - 다변화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.
- 또한,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
 -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어가는
 -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 하겠습니다.
- 지난 10.29일 수석보좌관 회의 시
 - 신남방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.
 - 대통령께서도 속도감 있는 신남방정책 추진과 함께,
 - 가시적 성과창출을 독려하셨습니다.

- 오늘 회의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해보고
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.
- 지난 1년간 신남방지역과의 진전된 협력관계 성과에 대해
각 부처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
- 우선,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순방을 다닌 부분까지를
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
(1년간 성과)

- 작년 11월 대통령 아세안 순방 시
사람(People), 상생번영(Prosperity), 평화(Peace) 등
'3P공동체'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
외교적으로나 경제적, 인적 교류 측면에서
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.

정상외교

- 우선, 대통령께서 직접 신남방정책의 선봉에 서셨습니다.
대통령께서는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필리핀, 싱가포르,
인도, 태국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
정상 간 상호우의를 굳건히 했습니다.
- 최근 모디 총리께서 대통령의 치수에 맞춰
전통의상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.
그리고 모디 총리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 일행이
인도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.

- 내주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한-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신남방 정상외교를 재가동 하실 예정입니다.
- 내년도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것입니다.

경제교류 측면

- 둘째, 경제협력에 있어 한-아세안 교역 규모*는 금년 10월까지 1,300억불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6%가 증가하여, 연내 1,60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* '17.1~10월 1,228억불 → '18.1~10월 1,321억불
-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·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천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중소·중견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단 것입니다. 아세안의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K-푸드, K-콘텐츠, K-스타일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성공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기업의 진출노력에 발 맞추어 정부는 현지 진출 중견·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조달 애로에 대응하여 '신남방 금융플랫폼'을 조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

인적교류 측면

- 세번째, 인적교류에 있어서
한-신남방 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%내외 증가하여,
올해 최초로 1,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특히, 금년도 방한 신남방 관광객 수는 9월 기준으로
전년 동기대비 12.5%*가 증가했습니다.
* 17.1~9월 159만명 → 18.1~9월 179만명
- 다만, 상호방문객에서 우리 관광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
앞으로 방한 관광객을 균형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
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(향후 추진전략)

- 지난 8월 출범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,
재외공관 현장역량을 강화하는 등
신남방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.
- 아울러 금번에 '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'라는 비전하에
각 3P 공동체를 중심으로 총 16개의 추진과제가 안전으로
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.
- 금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과제에 따라
다양한 협력사업들이 발굴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- 정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신남방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-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, 재계, 학계, 시민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하에서 계속 신남방정책을 실현,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.

□ 감사합니다.

신남방정책
추진 전략

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

I.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체계도

비전

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

3대
목표

- ①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
(2020년까지 한-아세안 상호방문객 연간 1,500만명 달성)
- ②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
(아세안 : 2020년 상호교역액 연간 2,000억불)
(인도 : 2030년 상호교역액 연간 500억불)
- ③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

16개
추진
과제

사람 (People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상호 방문객 확대 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③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④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⑤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·증진 ⑥ 삶의 질 개선 지원
상생번영 (Prosperity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⑦ 무역·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⑧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⑨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⑩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⑪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
평화 (Peace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⑫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⑬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⑭ 국방·방산 협력 확대 ⑮ 역내 테러·사이버·해양 안보 공동대응 ⑯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

추진
체계

- 신남방정책특위(추진단) 발족
- 신남방 지역 현장
주아세안대표부 등 재외공관 인력·기능 강화, 현지 진출 기업, 정부 유관 기관 등
- 국내 기반
(정·관계) 국회 한-아세안 포럼, 시도지사협의회 등
(경제계) 대한상의, 무역협회, 아세안·인도 진출 기업인 그룹 등
(학계) 국립외교원, KIEP, 동남아연구소·학회, KF 등 민간 전문가 그룹, 시민단체 등

II.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체계

1 사람 공동체 (People)

① 신남방 지역 국민의 방한 관광객을 확대하겠습니다.

○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 지역 국가로 다변화하여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

※ 지역별 방한 관광객 현황(2017년 기준) : 중국 420만명, 일본 230만명, 아세안 210만명, 인도 12만명

○ 경제규모·방한 관광객 규모 등 감안, 아세안 6개국(태국, 필리핀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)을 중점 대상으로 하되, 여타 국가 및 2선 도시로 확대하여 잠재적 방한 수요도 조기 창출

○ (이행방안) 한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, 국내 여행 환경 개선 (무슬림 방한 관광 만족도 제고), 비자 간소화 등

② 신남방 지역과 소통하는 한국문화를 위해 쌍방향 문화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.

○ 신남방 지역의 문화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 ODA 사업, 아세안 문화·언어 콘텐츠 확산 등 우리 국민들의 對아세안 인식 개선 등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

○ (이행방안) 수교기념* 계기 대규모 복합한류행사 개최, 문화원 등 문화 인프라 확대, 아세안 문화원 및 한-아세안 센터 활동 확대

* 필리핀('19년 / 30주년), 말레이시아('20년 / 60주년), 베트남('22년 / 30주년)

③ 신남방 지역 학생, 교원,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- 신남방지역 장학생 지원 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학생 교류 및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인적 자원 역량 강화
- 아세안 국가의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 등
- (이행방안) 정부초청 장학생 및 이공계 연수생 규모 확대, 분야별 공무원·민간 전문가 교류 확대, 기술직업교육훈련(TVET) 지원 등

④ 신남방 지역의 공공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,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공공행정 경험 공유에 대한 신남방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 수요 충족 및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 가치 증진 필요
- (이행방안) 시민사회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지원, 반부패·공공행정시스템 개선 등 거버넌스 강화지원

⑤ 한-신남방 국가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증진하겠습니다.

- 신남방 지역 노동자의 한국내 조기적응 및 귀국 후 재정착 지원,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·아동 지원
- (이행방안) 외국인노동자의 출입국, 구인·구직 및 경력개발 등 고충처리 지원, 다문화 취약가정 교육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

⑥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및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
- (이행방안) 농촌개발·농업기술 ODA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, 물 관리 및 질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 등

2

상생번영 공동체 (Prosperity)

7] 무역·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

- 한-아세안 기업이 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세안 역내 추진중인 지역 및 다자·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
- (이행방안) RCEP 조기타결, 한-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 개선, 비관세장벽 완화 등

8]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.

-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·에너지·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
- 한-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('18.9, 서울)를 통해 도출한 각국과의 중점 협력사업(10개국, 20가지) 지속적 모니터링·지원 통해 실질성으로 유도
- (이행방안)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간, 다자간 협력 채널 확대, 거점 협력센터* 확대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'18.6설립)·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사업(PPP) 수주 지원 등

* 「한-베트남 교통인프라 협력센터」 개소('하노이 '18.3) 시작으로, 협력센터 확대 추진

9] 중소·중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, 상호 교류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.

-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·수산(K-Food, K-Seafood), 미용(K-Beauty)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
- (이행방안) 한류박람회 등을 통한 한류마케팅 확대, 유통대기업 해외 홈쇼핑 활용 등 우리기업 소비재 시장진출 지원

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하여 혁신성장 역량을 높이겠습니다.

-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·아세안·인도간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·신산업 협력
 - (이행방안) 5G, K-Smart (Smart-City, Smart-Factory, Smart-Island, Smart-Farm), '코리아 스타트업 센터*' 설치(인도, 싱가포르), 보건의료업 및 제약,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등
- * 국내외 스타트업 공동 R&D 지원,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, 해외스타트업 협업이벤트 개최 등

11 신남방 각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- 각 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·수산업, 자동차·철강·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
 - (이행방안) 자동차·철강·석유화학 등 기간사업 현지투자 확대 지원(인니), 한국 산업제도 공유, 기술지원센터(TASK)* 설치 등 산업화 역량 강화(베트남, 미얀마 등), 중소기업 기술교류 협력(베트남, 태국, 인니, 말레이시아 등)
- *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: 개도국 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 및 사업화 지원

3 평화 공동체 (Peace)

12 신남방 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.

-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정상, 각료급 등 고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
- (이행방안)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,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, 2019년 한-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,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로 격상

13]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신남방 지역의 지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.

-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, 남북/미북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저변 확대
 - ※ 아세안 및 인도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,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우호 세력
- (이행 방안) 아세안 회의체 및 아세안 각국의 북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·개방을 유도

14] 포괄적인 국방·방산 협력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겠습니다.

- 한-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간 고위급 교류 확대, 방산기술 이전,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해 국방·방산 협력 심화
- (이행방안) 한-인니 차세대전투기(KF-X/IF-X) 국제공동개발 사업 추진 등 방산협력 기반 마련

15]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·사이버·해양 안보 등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
-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,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,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
- (이행방안)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대테러·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, 아세안 사이버 안보센터(싱가포르) 설립 참여, 선박 안전향해 역량강화

16] 신남방 지역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 예방 및 발생시 신속히 대응 및 복구하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- 분쟁,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지역 복원력(resilience) 향상 지원
- (이행방안) 기후기술 협력수요 발굴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, 재난 위험 경감, 재난 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, 돌발 홍수 예·경보 시스템 등 기술공유, 해양조사·예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/끝/